

제과류의 포장경향

Trend of Confectionery Packaging

안 성 근 / 롯데제과(주) 홍보팀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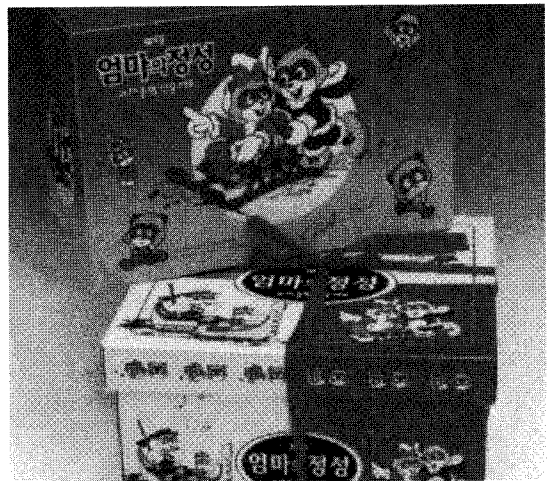
상품의 보존성 기능에서 효과적인 브랜드 부각 기능 정도를 감당했던 포장재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고급 제품의 중요한 조건으로 포장 재질과 형태, 디자인, 환경문제 등을 포함시킬 정도로 포장 부문은 제품개발에 중요한 위치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질에 있어 그 동안 원가가 높아 제과사들이 잘 사용하지 않던 로열아이보리지와 CCP지(Casting Coating Paper)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말 롯데제과는 고품질 전략의 일환으로 고감각, 고품질, 고가격을 표방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포장재질, 형태, 디자인 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에센 과 디아프 비스킷, 나뚜루 아이스크림 등에 로열아이보리지를 사용했고 자일리톨껌과 엑소초콜릿, 목캔디 등에는 CCP지(Casting Coating Paper)를 사용해 고급화된 재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제품에 사용된 종이는 표면이 매끄러워(평활도) 인쇄효과가 뛰어나며 종이 두께가 얇고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제품으로써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던 재질이다.

그러나 최근 고품격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다국적 기업의 유명 제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질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껌과 캔디, 스낵, 아이스크림 등의 포장지로 널리 쓰이는 OPP(Oriented Polypropylene)와 CPP(Ca-sting

[사진 1] 손잡이가 부착된 종합선물세트



[사진 2] 육각상자를 이용한 비스킷 포장



Polypropylene)도 크게 향상되어 제품개발에 기여하고 있는데 후라보노와 주시후레쉬 등 일반껌 외포에 OPP(Oriented Polypropylene)를 사용하고 화이트이와 부푸러 껌 등에는 양면셀로판지(MST)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사용되던 껌 포장지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함께 포장재질, 잉크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양질의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제반여건의 발전으로 고품질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됐다.

특히 인쇄 필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일매 필름의 작업이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작업으로 정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포장의 형태면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세련미를 겸비한 독창적인 형태의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과자 포장은 자동화를 위한 포장기계설비로 복잡한 구조의 접착이 어려워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접착기술 및 다양한 지기구조 연구로 오각, 육각,

[사진 3] 고급재질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포장



팔각, 지갑형태, 보석함, 서랍형태 등 독창적인 형태의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디아프 비스킷은 육각의 보석함 형태, 엑소 초콜릿은 육각기둥 형태이며 자일리톨껌은 슬림형, 윈터 초콜릿은 윗모양이 독특한 보석상자 형태이다. 유 앤 아이 초콜릿 등은 속이 잘 보이도록 제작됐다. 이러한 포장형태는 내용물을 먹고 난 뒤 포장이 쓰레기화되는 한계를 벗어나 진열과 재활용 등으로 가치를 늘려나가고 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먹다 남은 과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뜯는선 위치에서 지퍼를 달은 스낵류와 캔디류, 초콜릿류가 있는데 이들 제품의 포장지는 보관기능 외에도 소풍이나 나들이 때에 음식물 보관을 위한 용도와 물티슈 지갑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포장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포장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K]